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	----------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용어가 도덕 논의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옳고 그른 행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 원리를 활용하여 생명 윤리, 정보 윤리 등에서 논의되는 문제에 대한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 ③ (나): 사회의 도덕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④ (나):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보편적인 도덕규범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백성을 법령과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모면하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백성을 덕으로 이끌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된다.
 을: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이 단지 그의 존재만을 안다. 공(功)이 이루어지고 나면 백성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무위(無爲)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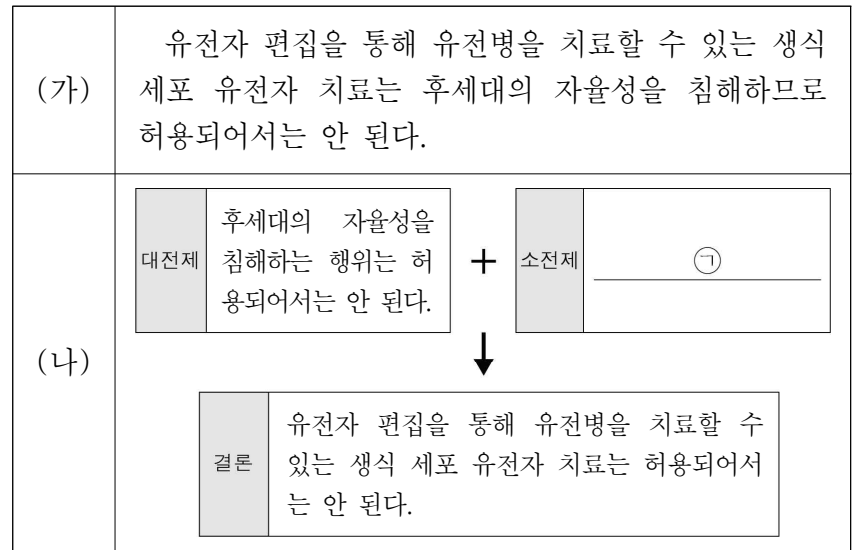
- ① 갑: 통치자는 법(法)을 배제하고 덕으로만 통치해야 한다.
- ② 갑: 통치자는 백성이 편안해진 후에야 수신(修身)할 수 있다.
- ③ 을: 통치자는 인의(仁義)를 갖추어야만 무위로 다스릴 수 있다.
- ④ 을: 통치자는 백성이 무지(無知)의 덕을 갖도록 다스려야 한다.
- ⑤ 갑과 을: 통치자는 선악(善惡)을 구별해 규범을 세워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내가 의도한 행위의 결과인 대상에 대해 나는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존경할 수는 없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 A는 유기견 봉사 활동을 가기로 친구와 약속하였다. 그런데 봉사 활동 당일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이 생겨, 약속을 지켜야 할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콘서트에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동정심을 기준으로 어떠한 행위가 도덕적인지를 판단하세요.
- ② 약속 준수와 공연 관람 중 더욱 칭찬받을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③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 ④ 약속을 지키지 말지를 경향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세요.
- ⑤ 자신의 행위가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따른 것인지 검토하세요.

4.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는 유전적인 개입이다.
- ②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 ③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 배아를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한다.
- ④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부모의 의도에 따라 자녀의 자질이 설계되는 우생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 ⑤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 형질을 개선해 삶의 방향에 대한 미래 세대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는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물질적 및 과학 기술적 자원들이 결핍되어 있다.
 을: 절대 빈곤은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이다.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풍요로운 사람은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

- ① 갑: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외 원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 ② 갑: 서로 다른 만민 간 평균적 부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해외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 ③ 을: 해외 원조는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당위가 아닌 자선 행위이다.
- ④ 을: 해외 원조가 가져올 결과에 따라 원조의 이행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⑤ 갑과 을: 해외 원조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 하나입니다. 상류층의 유행은 하류층의 유행과 구분되며, 상류층의 유행이 하류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간 상류층의 유행이 소멸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남과 구분되려는 욕구가 결여되는 경우, 반대로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되는 경우 유행의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유행의 생성과 소멸은 계층 간 차이의 산물이다.
- ② 유행은 계층 내 동질성은 감추고 계층 간 차별성은 드러낸다.
- ③ 상류층은 차별화 경향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행을 선도한다.
- ④ 하류층은 상류층에 동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유행을 창출한다.
- ⑤ 하류층은 타 계층을 모방하지 않는 영속적인 유행을 추구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노동자의 노동은 강요된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상실이다. 강제로 수행되는 노동이 멈출 때 자유의 영역은 비로소 시작된다.
 을: 각 개인에게는 신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 주신 초소와 같다. 이 모든 것이 신께서 지워 주신 의무임을 우리가 알고 따를 때 소명(召命)은 신 앞에서 빛날 것이다.

- ① 갑: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곳에서 노동의 본질은 실현된다.
- ② 갑: 자본주의의 기술적 분업을 통해 노동 소외를 없애야 한다.
- ③ 을: 노동하는 것과 독실한 신앙 생활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이 부여한 소명에 위배된다.
- ⑤ 갑과 을: 노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이다. 정치적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해왔지만 그 호소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최후의 대책으로 시민 불복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유권자 다수가 공개적으로 참여해야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 ②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서 법률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③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양심적 행위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될 수 있다.
- ④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된다.
- 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임금과 대신들이 음악을 좋아하여 즐기면 국가는 어지러워진다. 농부가 음악을 좋아하여 듣기만 한다면 콩과 조가 부족해진다.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를 없애려고 한다면 음악을 금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을: 예(禮)는 사람의 본성[性]이 아니라 성인의 작위[偽]에 의해 생겨난다. 예에 맞는 음악을 귀히 여기고 사특한 음악을 천시해야 한다. 음악이 엄숙하면 백성이 혼란하지 않고 편안히 살게 된다. 이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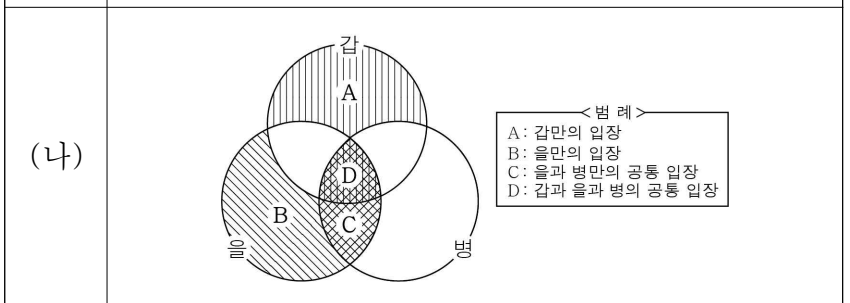
< 보기 >

ㄱ. 갑: 음악은 생산 활동을 방해하지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ㄴ. 을: 음악이 예에 알맞으면 사회를 바로잡는 규범이 된다.
 ㄷ. 을: 음악은 본성을 변화시켜 세상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ㄹ. 갑과 을: 음악 없이는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물이 이성을 지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
 을: 개별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이들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병: 종 차별주의를 버리고 육식을 멈추면 식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식량을 제대로 분배하면 기아를 없앨 수 있다. 동물 해방은 인간 해방이기도 하다.



< 보기 >

ㄱ. A: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ㄴ. B: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ㄷ. C: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조건부로 이행될 수 있다.
 ㄹ. D: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을: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처벌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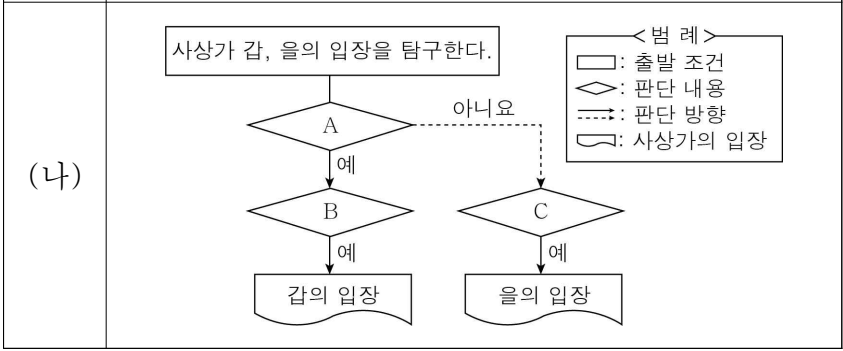
- ㄱ. 갑: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정의롭다.
- ㄴ. 갑: 범죄자의 의도를 제외하고 사회에 끼친 해악으로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
- ㄷ. 을: 범죄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ㄹ. 갑과 을: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2.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평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을: 분배적 정의에 관한 정형적 원리들에 의하면 재분배 행위는 필연적이다. 소유 권리론의 입장에서 볼 때,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 보 기 >

- ㄱ. A: 부의 획득 과정에서 자연적 우연성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 ㄴ. B: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는 공정한가?
- ㄷ. B: 기본적인 자유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ㄹ. C: 정당한 노동 없이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 자율성의 원칙과 해약 금지의 원칙 외에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필요한 도덕적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을: 사랑하는 부부 사이 외의 성적 관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오해이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혼은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필수적인 도덕적 제약이다.

- ① 갑: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갑: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제약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생식적 가치를 위한 성적 관계가 비도덕적인 경우가 있다.
- ④ 을: 인격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도덕적인 성적 관계가 있다.
- ⑤ 갑과 을: 사랑의 결합 여부로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결정된다.

14.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뉴 미디어의 발전으로 개인의 초상, 성명 등과 같은 인격적 속성을 경제적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로 인해 인격적 속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등장하였다. 유명인의 인격적 속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이 보장될수록 타인의 인격적 속성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① 개인의 인격적 속성을 이용한 영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개인에게 속한 무형의 속성에 배타적 권리가 부여될 수 있다.
- ③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공공재이며 제한 없이 이용될 수 있다.
- ④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수록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 ⑤ 공적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을 가질 수 있다.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 인간은 역사적 현재에서만 사는 것을 거부하고 성스러운 시간을 다시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축제에서 현현(顯現)하는 신화적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한편, 비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비록 의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탄생, 결혼, 취임, 승진을 축하하는 의식에서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

- ①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시간은 회복과 반복이 가능하다.
- ②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시간 속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한다.
- ③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사물 그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인다.
- ④ 종교를 의식할 능력을 상실해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 ⑤ 비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움은 다양한 양태로 드러날 수 있다.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중용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덕이다.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너무 적게 먹고 마시는 것 모두 건강을 해친다.
 을: 수행자는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은 뒤 잠자는 즐거움에 빠지면 마음이 전념을 다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는 것은 몸을 존속하고 청정범행(淸淨梵行)을 잘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갑: 적당한 음식의 양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 ② 갑: 음식을 절제하며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을: 식생활은 신체에 대한 영양 공급 이외의 의미를 지닌다.
- ④ 을: 먹는 즐거움에만 탐닉하는 것은 마음의 수양을 방해한다.
- ⑤ 갑과 을: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생존에 대한 욕구와 연관된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영혼은 육체로부터 최대한 독립했을 때 이데아에 대한 최상의 사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누구보다도 평생에 걸쳐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한다.

< 보 기 >

- ㄱ. 철학자는 영혼과 육체의 불멸성을 깨달아야 한다.
- ㄴ. 인간은 영혼을 돌보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ㄷ. 참된 실재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아프리카인에 대한 수 세기 동안의 직접적 폭력은 주인이 자 사회적 강자인 백인들과 노예이자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 간의 구조적 폭력으로 확산되거나 침전되었다. 이는 인종주의적 이념과 함께 문화적 폭력을 재생산하였다. 이후, 직접적 폭력과 노예제도는 잊혔지만 구조적 폭력에 해당하는 '차별'과 문화적 폭력에 해당하는 '편견'으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 보 기 >

- ㄱ. 모든 폭력은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 ㄴ. 위협에 대항하는 폭력은 평화 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채택된다.
- ㄷ. 이데올로기는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 ㄹ. 착취가 문화적으로 정당화되면 직접적 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경쟁, 불신, 공명심은 분쟁의 주된 원인이다. 인간은 지배자가 되기 위해, 자기방어를 위해, 자신을 얽잡아 보는 표현 때문에 폭력을 동원한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을 때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로 들어간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적이다. 이 상태는 방종의 상태가 아닌 자유의 상태이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는 자연법은 있으나 무사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 ① 갑: 주권자의 자의적인 통치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 ② 갑: 사회 계약은 모든 자연권을 양도할 것을 누구에게도 요구할 수 없다.
- ③ 을: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 ④ 을: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권력인 입법권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 ⑤ 갑과 을: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의 이성에 근거해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학적 가설이나 이론이 정당화되는 과정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탐구 방법과 연구 윤리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학의 객관성 확보에 대한 정언 명령입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가치 중립적 태도는 이론의 정당화 과정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해 윤리적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과학은 사회와 무관한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의 활용은 정치인, 기업가와 같은 사회 구성원의 몫입니다. 과학자는 중립적 관찰자로 남아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의 원폭 실험이 없었다면 정치인이 원폭 투하를 결정하는 실제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가 인류에게 끼친 사회적·경제적 공로를 인정받듯이 해악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 ① 과학자는 객관적인 이론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② 과학 연구의 결과는 경제 발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가?
- ③ 실험 과정에서 과학자의 조작과 날조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 ④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⑤ 과학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적 사고가 필요한 때가 있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